

NC 에이스 이재학 “선발 10승 던진다”

2013 시즌 당찬 그의 꿈

퓨처스리그 15승2패 방어율 1.55 롯데 에이스 장원준보다 좋은 성적 “선발 확산...방어율은 3점대 목표”



이재학은 2012년 NC의 첫 퓨처스(2군)리그 시즌에서 15승을 올렸다. 그리고 2013년 NC의 1군 첫 해, 팀의 첫 토종에이스를 꿈꾼다. 스포츠동아DB

2012년 한 해를 퓨처스(2군)리그에서 보낸 NC 선수들에게 유독 올 겨울은 조바심이 난다. 드디어 내년이면 1군에 데뷔한다. 부족한 경험은 여전히 큰 약점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신감으로 2013년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사이드암 투수 이재학(23)의 기대는 특별하다. 1군 수준에 가장 근접한 신인이라고 평가받으며 프로에 입단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팔꿈치 부상의 아픔에 이어 2차 드래프트 보호선수 40인에서 제외되는 시련까지 겪었다. 2012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의 프로생활은 환희보다 아픔이 더 많았다.

프로선수는 모두 1군 무대를 꿈꾼다. 신생팀에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1년을 오롯이 2군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재학은 NC의 1군 데뷔해에 가장 큰 기대를 사고 있는 주축 투수로 올라섰다.

2군 남부리그에서 이재학이 올린 성적은 15승2패, 방어율 1.55, 아무리 퓨처스리그 기록이라지만, 15승에 1점대 방어율은 의미가 크다. 모두 남부리그 전체 1위의 성적이다. 2011년 롯데에서 15승(6패·방어율 3.14)를 거둔 장원준이 올해 경찰청 유니폼을 입고 2군 북부리그에서 방어율 2.39(6승4패15세이브4홀드)를 기록한 것 과 비교해도 매우 빼어나다.

이재학은 대구고를 졸업하고 2010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0순위로 두산 유니폼을 입었다. 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 당시 두산의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좌완 장민익의 계약금 1억5000만원, 그만큼 이재학은 유망주로 꼽혔다. 신인 잘 뽑고 잘 키우기로 유명한 두산은 당시 장민익은 가능성, 이재학은 즉시전력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재학은 팔꿈치 통증으로 2010년 16경기에서 1승1패만 기록했다. 2012시즌을 앞두고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두산이 이재학을 보호선수 40명에서 제

외한 이유도 팔꿈치 부상 때문이었다. 다행히 김경문 감독 등 두산 출신의 NC 코칭 스태프는 이재학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주저 없이 영입했다.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이재학은 NC의 완벽한 에이스였다. 그리고 내년에는 NC의 토종 에이스를 꿈꾸고 있다. 2013년 NC는 3명의 외국인선수를 모두 선발투수로 뽑을 계획이다. 남은 선발 자리는 고작 2개. 그러나 이재학은 자신감이 넘친다. “내년에는 무조건 선발에서 살아남겠다. 자신도 있다. 선발에서 10승 이상, 그리고 3점대 방어율을 꼭 달성하겠다”는 당찬 각오다. 신생팀에 가장 필요한 ‘두려움 없는 열정’을 간직한 이재학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보라스 “류현진, 일본 갈 수도 있다”...리얼리?

유리한 연봉협상 위해 임포성 발언 한화 동의 미지수...日행 가능성 낮아 LA다저스의 장기계약 제안도 거절



래터 단장의 말을 인용해 “류현진이 다저스의 장기계약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콜레티 단장은 “화요일에 장기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를 즉시 거부했다”고 말했다. 콜레티 단장은 구체적 협상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보라스는 같은 날 류현진의 일본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내년 시즌 일본에서 뛰 수도 있다. 그 후 FA(프리 에이전트)가 돼 포스팅 절차를 밟지 않고도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에서 다저스에 끌려

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류현진의 일본행 가능성은 매우 적다. 우선 한화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렵다. 한화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전제로 류현진의 해외 진출에 동의했다. 류현진도 일본행을 검토한 적이 없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일 “구단이 어떤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류현진은 고졸 7년차로 팀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선수다. 이번 해의 진출에 실패하면 한화로 돌아와 2년을 더 뛰 뒤 완전한 FA 자격을 획득해 다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라스의 이날 발언은 임포성으로 그칠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트위터@gyong11

앤서니 기자의 추신수 STORY

보스턴 ‘추신수 카드’ 만지작 친정 시애틀 트레이드 솔솔

추신수(30·클리블랜드)의 친정 복귀는 가능할까. 4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메이저리그 원터미팅이 시작됐다. 30개 구단 단장들과 에이전트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카드를 주고받으며 뜨거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메이저리그 수준급 외야수로 꼽히는 추신수도 인기 있는 트레이드 카드다.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2013시즌이 끝나면 FA(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추신수를 트레이드해 유망주를 영입할 수 있다. 당장 외야 보강이 필요한 팀들도 장기계약과 1000만달러 이상의 고액연봉의 부담이 없는 추신수가 매력적 카드다.

영원한 우승후보 보스턴을 비롯해 외야 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도 많다. 그 중에는 한국의 부산고등학교 투수 유망주였던 추신수를 메이저리그로 스카우트해 타자로 변신시킨 시애틀도 있다. 크리스 안토네티 클리블랜드 단장은 원터미팅에서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성과를 가져오겠다.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후반 스즈키 이치로를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한 시애틀도 외야 보강과 더불어 정교한 타격과 발 빠른 1번타자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애틀에는 에릭 웨지 감독이 있다. 시애틀에서 유망주였던 추신수는 2006년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된 뒤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됐다. 당시 클리블랜드 사령탑이었던 웨지 감독은 시애틀에서 이치로에 가려 기회를 잡지 못했던 추신수를 꾸준히 선발로 기용했다. 추신수는 2008년 메이저리그에서 94경기, 그리고 웨지 감독이 시즌 종료 직전 해임된 2009년 156경기를 뛰며 빅리그에서 주전을 굳혔다. 2011년부터 시애틀을 지휘봉을 잡고 있는 웨지 감독은 여전히 추신수의 ‘빅 팬’이다. 추신수의 시애틀행은 매우 흥미로운데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MLB.com 기자



KIA 포수 차일목(31·오른쪽)이 8일 오후 1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신부 유미영 씨(25)와 결혼한다. 팀 동료 박기남 부부의 소개로 지난해 6월 처음 만난 이들은 1년 반 동안 사랑을 키워왔다. 신혼집은 광주 운암동에 마련했다. 한편 이에 앞서 KIA 육성지원팀 권윤민 스카우트(34)는 7일 오후 5시 인천 송도 웨리튼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신부 강지영 씨(31)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사진 제공 | KIA 타이거즈

AP “ML 투수도 내년부터 보호장구 착용”

AP통신은 5일(한국시간) 내년 시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도 보호장구를 머리에 쓰고 마운드에 오를 것 같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의료책임자인 게리 그린 박사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고 있는 원터미팅에서 투수들의 머리부상 방지를 위한 보호장구 착용 방안을 발표했다.

‘대만 빅리거’ 왕젠민 귀홍즈 WBC 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직위원회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한 시즌 최다승(19승) 기록을 보유한 대만 왕젠민(32)과 다저스 출신 좌완투수 귀홍즈(31)가 제3회 WBC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내년 3월 2일 시작되는 본선 1라운드에서 한국과 만난다.

편지 | 심승수 기자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은빛 설원의 국가대표 - 강원도에서 신나게 즐기자!

〈신나는 겨울축제〉 · 평창송어축제(2012. 12. 22~2013. 2. 3) · 대관령 눈꽃축제(2012. 12. 25~2013. 1. 5) · 내설악 겨울강변축제(2012. 12. 28~2013. 1. 6) · 홍천강 금빛송어축제(2013. 1. 4~1. 20) ·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2013. 1. 5~1. 27) · 인제빙어축제(2013. 1. 19~1. 27) · 태백산 눈축제(2013. 1. 25~2. 3)

〈강원도내 스키장〉 · 알펜시아리조트 (평창) · 하이원리조트 (정선) · 오우리조트 (태백) · 대명비발디파크 (홍천) · 엘리시안 강촌 (춘천) · 한솔오크밸리리조트 (원주) · 용평리조트 (평창) · 현대성우리조트 (횡성) · 보광힐닉스파크 (평창)

